

## 한국 국제개발구호협력 분야에서 물리치료사의 참여 필요성과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관심도 조사

김광훈 · 안소윤

부산가톨릭대학교 물리치료학과

### A Study on the Needs for Joining Korean Physical Therapists and Concerns of in the Physical Therapy Students in the File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id Cooperation

Kwang Hun Kim · So Youn Ahn

*Dept. of Physical Therapy, Catholic University of Busan*

####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needs for joining of Korean Physical Therapists and the concerns of Physical Therapy student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id cooperation. **Method** : we conducted a survey of students whose major is Physical Therapy and employees and volunteers who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aid business of KOICA.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1) Employees and volunteers who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aid business of KOICA recognized that there was the needs for joining of 1 to 3 or more than 3 Physical Therapist as a member of overseas volunteers programs. 2) Even though Physical Therapy students have a great interest in volunteering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id cooperation, they have few information. **Conclusion** : Firstly, there are needs to extend the participation of Physical Therapist to 1~3 or more than 3 in the KOICA project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id cooperation. Secondly, we should be able to give a lot of information and to make a plan for Physical Therapist students to be a member of oversees volunteers to enhance their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about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inally we could examined the needs for joining of Korean Physical Therapists and the concerns of Physical Therapy student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id cooperation.

**Key words** : International development aid cooperation, Korean Physical Therapists and PT students

교신저자 : 안소윤

주소 : 609-757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부곡3동 9번지), 전화 : 051-510-0579, E-mail : syahn@cup.ac.kr

## I. 서론

최근 국가 간 교류의 증대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제협력을 통한 전 세계의 평화와 복지의 증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에 접어들면서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구촌에 산재해 있는 빈곤 환경과 AIDS 등 비 전통적인 안보(non traditional security) 이슈들은 더 이상 한국과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공동체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국제협력이 보다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민간부분에서도 지구촌 이웃들을 돕는 인도주의적 정신과 지구촌 공동체 의식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Han, 2009).

이에 국제사회는 개발원조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Jeon et al, 2007). 이 결과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었고 평화와 평등이 공존하는 세계화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NGO 단체를 중심으로 해외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절대빈곤 국가에서 출발하여 짧은 기간에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규모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정부차원에서 한국 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정부중심의 국제 협력 사업이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정부는 1990년 아시아 4개국(네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44명의 봉사단원 파견을 시초로 지금까지 65개국에 총 1만 명을 파견했다. 현재 활동 중인 봉사단원은 45개국 총 1천 612명으로, 봉사단원이 가장 많이 파견된 나라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이며, 분야별로는 교육 분야가 54.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Koica, 2013).

국제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목적으로 2000년 9월 뉴욕 UN본부의 새 천년 정상회의(Millennium Summit)에서 미국을 비롯한 191개의 UN 회원국이 세계인권선언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에 중점을 맞추어 선택한 세계 공동 의제인 새천년 개발목표로 극심한 빈곤을

감소시키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8가지 목표를 선택하였다(Lois, 2011). 그 중 보건의료분야는 새 천년 개발 목표에서 직간접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과 관련이 있다.

한국 국제협력단도 UN의 보건의료분야의 새 천년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고자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 계층, 취약 질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영양관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보건 의료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다(Koica, 2011).

물리치료사는 신체적 기능결함 및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양질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능의 개선을 통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복귀를 도와주는 전문가로서(Michael A.P, 2001) 국제개발구호사업의 보건의료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한국 국제협력단에서도 매년 물리치료분야의 해외봉사단원을 선발하여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 설립 후 지금까지 20년간 해외에 파견된 보건의료분야 봉사단원 1111명 중에서 물리치료분야 봉사단원은 192명(17.2%)으로 간호사와 의사에 비해 파견 비율이 매우 낮다(Koica statistics system, 2011).

본 연구는 국제개발구호협력 분야에서 물리치료사의 참여 확대 필요성과 물리치료과 재학생들의 관심 정도를 조사하여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물리치료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방법

연구대상자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에 참여한 관계직원 및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에 참여한 봉사단원 출신의 물리치료사 및 기타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부터 약 14주간에 걸쳐 이메일을 통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설문지를 전달하였고, 해외에 거주하는 봉사단원을 포함한 전

체 44명의 대상자 중 13명(29.5%)이 응답 하였다. 자료 수집은 한국국제협력단 ODA 도서관의 문헌과 한국국제협력단의 통계 자료를 통하여 물리치료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였다.

물리치료과 재학생은 2011년 12월부터 약 한 달간 전국의 4개 대학에 212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192명(90.5%)의 응답을 받았다.

## 2. 연구도구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에 참여한 관계직원 및 봉사단원 그룹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Choi(2010)의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응답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사항 4문항,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 파견 사업에서 물리치료분야에 대한 필요성 및 요구도에 관한 조사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물리치료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Zhang(2008)의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응답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사항 4문항, 물리치료분야의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참여인식에 관한 조사 8문항, 물리치료분야의 국제교류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에 관한 설문 11문항, 물리치료과 학생으로서 해외봉사활동 참여 및 준비의 제약요인에 관한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한국 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원 파견 사업에 참가한 직원 및 봉사단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사항 및 물리치료분야 사업에 관한 실태 및 요구도에 관련된 문항은 명목척도를 사용하였고,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물리치료분야의 사업의 지속, 확대, 축소에 대한 견해에 관한 문항은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리치료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인구통계학적 사항 및 참여인식도에 관련된 문항은 명목척도를 사용하였고, 해외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

기 및 참여, 준비에 있어서 제약요인에 관련된 문항은 Likert 5 point scale로 구분하여 매우 그렇다 에 응답한 경우는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에 응답한 경우에는 1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s SPSS version 12.0을 통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내용을 분석하였고 각 문항에 대한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응답은 백분율을 통해 결과를 산출 하였다.

## Ⅲ. 결 과

###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1) KOICA 직원 및 해외봉사단원 그룹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에 참가한 봉사단원 및 직원 그룹에 대한 설문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 본부 직원 2명, 해외사무소 직원 4명, 물리치료분야 봉사단원 5명, 간호 분야 단원 3명으로 총 1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표 1).

표 1. KOICA직원 및 봉사단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분류	빈도	%
성별	남	2	14.3
	여	12	85.7
나이	20대	8	57.1
	30대	5	35.7
	40대 이상	1	7.2
직무	국내직원	2	14.2
	국외직원	4	28.5
	봉사단원	8	57.3
파견국가	아시아	9	64.2
	중남미	1	7.3
	아프리카	4	28.5

#### 2) 물리치료과 재학생 그룹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 192명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서 연령은 20대가 152명(79.2%)로 가장 많았으며 20세 이하가 37명(16.6%), 30대가 3명(4.2%)이었고 성별은 남자는 65명(33.8%)이고 여자는 127명(66.2%)이었다(표 2).

표 2. 물리치료과 학생의 일반적 특성

변수	분류	빈도	%
성별	남	65	33.8
	여	127	66.2
나이	10대	37	16.6
	20대	152	79.2
	30대 이상	3	4.2

## 2. KOICA 직원 및 해외봉사단원에 관한 조사

### 1) KOICA의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에서 물리치료사에 대한 요구도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원 사업에서 모든 국가에 물리치료분야의 봉사단원이 파견되어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으나, 설문 응답자 14명 전원이 자신이 활동한 국가에서의 보건의료분야 원조사업에서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지속, 확대 되어야 하며 ‘1~3명’ 또는 그 이상의 물리치료분야 봉사단원이 증원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 2) KOICA의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에서 물리치료분야 단원을 증원해야 하는 이유

(1)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교통 신호체계가 발달하지 못하고 이동수단의 사용 미숙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높아서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뇌손상, 관절 손상 등 신체 일부의 마비 또는 기능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전문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재활을 위한 치료가 적절하게 제공되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어서 장애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기능을 개선시키는 사후 관리에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하였다.

(2) 그 외에도 개발도상국 내에 재활을 위한 전문 인력을 교육 및 양성, 한국과 개도국간의 물리치료분야의 협력 확대, 개도국의 소외계층에 대한 무상 치료 서비스 기회 확대를 위해 물리치료분야의 단원이 증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 3) 물리치료분야 사업의 지속과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요구되어지는 변화

현재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은 현지 국가 및 기관에서 선호하는 분야의 인력을 한국에서 선발하여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지에서 주로 요청하는 의사, 간호사 분야의 봉사단원 외에도 재활을 담당하여 신체기능의 개선을 담당하는 물리치료분야의 단원에 대한 필요와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물리치료분야 단원 선발을 확대하여 파견한다면 현지의 열악한 의료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진료, 간호 및 치료가 제공되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은 물리치료사 관련 단체 및 물리치료과 구성원들과 협력해서 물리치료과 학생 및 물리치료사들의 국제개발구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보와 참여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교육하고 홍보한다면 효과적으로 물리치료사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3.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물리치료분야 국제개발구호협력에 대한 관심도 조사

### 1) 물리치료분야의 국제개발구호협력 활동에 대한 참여 인식에 관한 조사

(1) 귀하는 물리치료사의 해외봉사 및 파견활동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에서 전혀 모르거나 모른다는 응답이 122명(63.5%), 보통 56명(29.1%), 알고 있거나 많이 알고 있다는 응답이 14명(7.4%)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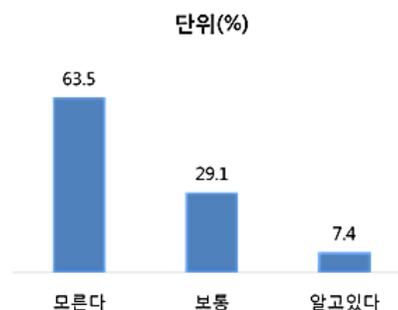


그림 1. 해외봉사활동 인식 여부

(2) 국제개발구호협력에서 물리치료분야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서 필요하다 109명(56.7%), 매우 필요하다 45명(23.4%), 보통 35명(18.2%), 필요 없다 2명(1.0%), 전혀 필요 없다 1명(0.7%) 순으로 응답하였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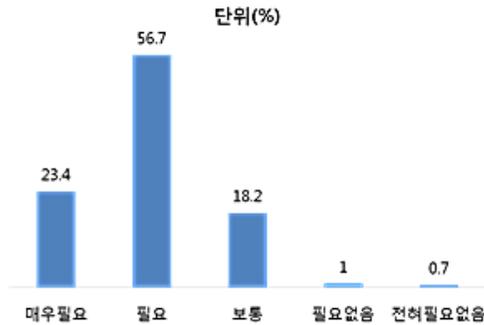


그림 2. 국제구호사업에서 물리치료의 필요성

(3) 귀하는 어떤 경로로 국제개발구호협력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까?에서 매스컴을 통한 경우가 전체의 53명(27.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학교를 통한 경우가 전체의 39명(20.4%), 주위사람과 인터넷을 통한 경우가 각각 전체의 36명(18.8%), 기타 18명(9.4%), 정부기관 및 NGO를 통해 5명(2.7%), 자원봉사단체를 통한 경우가 3명(1.6%), 종교 활동을 통한 경우가 2명(1.0%)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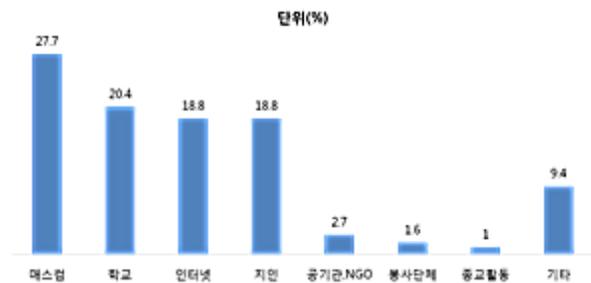


그림 3. 정보 습득 경로

(4)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물리치료사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자질/자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서 봉사정신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전체의 115명(59.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책임감 31명(16.1%), 외국어능력 13명(6.8%), 전공지식 실력 12명

(6.3%), 개발구호원조에 대한 지식 10명(5.2%), 타문화에 대한 지식 8명(4.2%), 대인관계의 유연성 2명(1.0%), 기타 1명(0.5%)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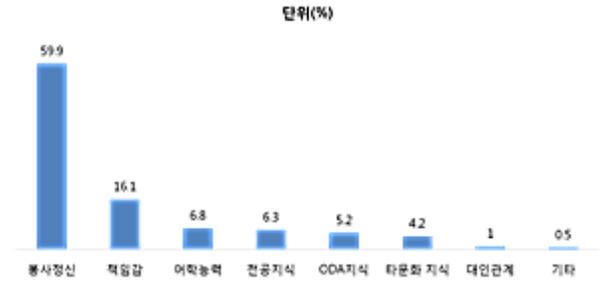


그림 4. 필요한 물리치료사의 자격 및 자질

(5) 해외봉사활동 참여 유무를 묻는 문항에서 189명(98.4%)이 과거 해외봉사경험이 없다고 답하였고 3명(1.6%)만이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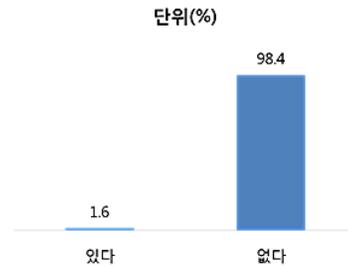


그림 5. 해외봉사 참여 여부

(6) 졸업 후 KOICA의 물리치료분야 해외봉사단원에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까?에서 118명(61.4%)이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고 74명(38.6%)이 없다고 응답하였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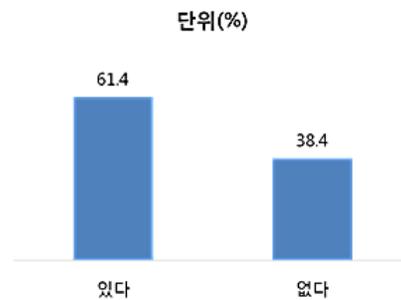


그림 6. 해외봉사단원 지원 의사

(7) 졸업 후 해외봉사단원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는 11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근무하고 싶은 국가를 조사한 질문에서 아시아가 70명(59.3%)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남미 30명(25.4%), 아프리카 12명(10.1%), 동구CIS 5명(4.2%), 중동 1명(1.0%)순으로 응답했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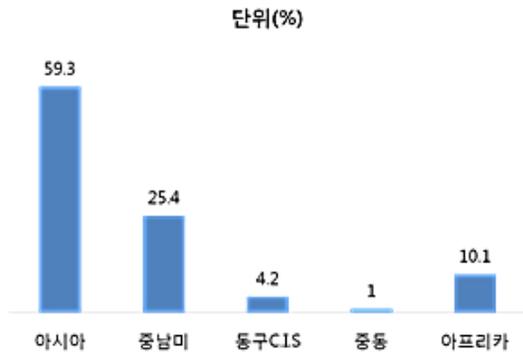


그림 7. 파견 시 근무하고 싶은 국가

(8) 귀하가 물리치료사로서 KOICA 해외봉사단원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118명의 지원의사가 있는 학생들 중 장애인에 대한 물리치료(소아, 성인, 노인)가 64명(54.2%), 교육 분야(지역사회 재활요원 교육) 51명(43.2%), 기타 3명(2.6%)로 나타났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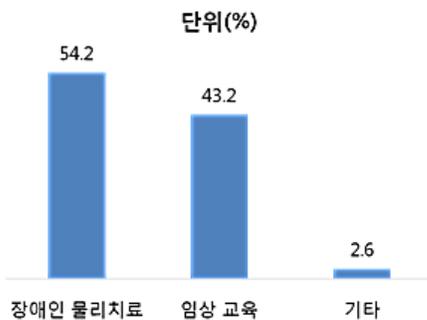


그림 8. 근무하고 싶은 분야

2) 물리치료사의 해외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에 관한 조사

본 연구에서 물리치료과 학생들이 물리치료분야의 국제 봉사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를 Likert 5 point scale 통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표 3)과 같다.

표 3. 해외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동기	평균±표준편차(N=192)
봉사심	3.54±0.80
종교적 신념	2.20±1.11
사회발전 도움	3.44±0.89
경험지식 습득	4.08±0.77
대인관계 확장	3.32±0.98
자기 발전	3.99±0.79
만족감 성취	3.91±0.85
국내취업 경력	3.25±0.97
국제사회 기여	3.24±0.89
해외취업 발판	3.11±1.09
외국어 습득	3.44±1.00

3) 물리치료과 학생으로서 해외봉사활동 참여 및 준비에 관한 제약요인에 관한 조사

본 연구에서 물리치료과 학생으로서 국제 봉사활동에 참여 및 준비에 관한 제약요인을 Likert 5 point scale을 이용하여 알아본 결과는 다음(표 4)와 같다.

표 4. 학생들이 느끼는 제약요인

제약요인	평균±표준편차(N=192)
관련 내용학습 부족	3.69±0.97
해외봉사 정보부족	4.07±0.76
인구통계학적 제한	2.68±1.03
주위사람들의 반대	2.77±1.11
부족한 근무조건	3.14±0.93
국내취업 도움안됨	2.53±0.89
외국어실력 부족	3.29±1.11
해외취업 도움안됨	2.47±1.00

## IV. 고 찰

본 연구는 국제개발구호협력 분야에서 물리치료의 필요를 검토하여 추후에 해외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물리치료사 및 물리치료과 재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국제개발구호협력 분야에서 물리치료사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설문 조사와 통계자료를 검토 하였다.

KOICA의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에서 물리치료분야 단원을 증원해야 하는 이유는 개발도상국의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뇌손상, 관절 손상 등 신체 일부의 마비 또는 기능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전문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재활을 위한 치료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장애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기능을 개선시키는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또한 개도국의 소외계층에 대한 무상 치료서비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물리치료분야 단원이 충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해외봉사활동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단원과 직원들은 물리치료분야 사업의 지속과 확대를 제안 하였다. 현재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은 현지 국가 및 기관에서 선호하는 분야의 인력 주로, 의사, 간호사를 한국에서 선발하여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신체기능의 개선을 담당하는 물리치료분야의 단원에 대한 필요 수요도 높아져서 물리치료분야 단원 선발이 확대되길 희망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국제협력단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관련 단체 및 물리치료 대학과 협력해서 물리치료과 학생 및 물리치료사들의 국제개발구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보와 참여기회를 제공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교육하고 홍보한다면 효과적으로 물리치료사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Choi(2010)의 조사에서는 전공 분야의 해외봉사단원, 전공분야의 봉사활동과 함께 했던 기타 분야의 봉사단원, 그리고 현지의 봉사활동 수혜자들을 설문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을 세분화 하고 봉사활동 수혜자로 확대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에 참여한 물리치료 봉사단원, 기타 보건의료분야 봉사단원 그리고 관계직원과 물리치료과 재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다.

물리치료과 학생들은 물리치료분야의 해외봉사활동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모른다는 응답이 122명(63.5%)로 높게 나타나 재학생들이 물리치료분야의 해외봉사 및 파견활동에 관한 인식과 이해의 정도가 높지 않았지만 국제개발구호협력 사업에서 물리치료분야의 사업이 필요한가에 관한 질문에서는 매우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154명(41.6%)로 나타

나 물리치료분야의 해외봉사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Zhang(2008)의 대학생들의 자원봉사에 관해 알게 된 접촉경로에 관한 조사에서는 마스크를 통한 경우가 전체의 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인터넷(57%), 주위사람(27%), 학교(14%) 순으로 나타났다. 물리치료과 학생들이 국제 개발구호협력 사업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마스크(27.7%)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학교(20.4%), 주위 사람(18.8%), 인터넷(18.8%)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물리치료사가 해외봉사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이고 대학 재학 중에 해외봉사 참여 하여 물리치료분야의 해외봉사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국제개발구호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물리치료사에게 요구되는 자격으로 봉사정신(59.9%)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책임감(16.1%)을 들었다. 이는 봉사자로서 요구되는 자질이 봉사정신이라고 지적한 Kwon(1988)의 견해와 일치하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자로서 요구되는 자질에 관한 설문에서 봉사정신(82%)과 책임감(78.5%) 순으로 중요하다고 한 Zhang(2008)의 조사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재학생들은 해외봉사활동 경험이 거의 없었지만, 졸업 후 물리치료사로서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 파견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으로서 참여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원하는 파견지역은 아시아를 가장 선호하였고 원하는 근무분야는 장애인에 대한 물리치료(소아, 성인, 노인)분야, 교육 분야(지역사회 재활요원 교육)순 이었다.

학생들이 물리치료분야의 해외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를 분석한 결과 이타적인 항목에서는 ‘봉사심’ ‘사회발전 도움’의 요인이 높게 나타났고, 이기적인 항목에서는 ‘경험과 지식의 습득’ ‘자기발전’ ‘만족감’의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참여 동기에 대한 Zhang(2008)과 Fan(2010)의 조사에서 이타적 요인보다 이기적 요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학생들의 해외봉사활동 참가에 대한 욕구가 높는데

비해서 재학시절의 해외봉사활동 경험이 부족한 만큼 정부와 학교 차원에서 물리치료과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물리치료과 학생들은 재학 중에 해외자원봉사활동의 기회를 보다 많이 갖게 된다면 언어 습득처럼 시간이 많이 드는 일에 효과적으로 준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물론 관련 단체에서 물리치료의 세부 전문영역에 대한 정보를 한국 국제협력단에 제공하여, 향후 물리치료 분야 봉사단원 선발 시 해외기관의 수요에 적합한 단원을 선발 및 파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물리치료사의 참여 확대의 필요성과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관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공적개발원조기구인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의 직원을 포함한 물리치료와 간호 봉사단원 14명과 물리치료과 재학생 19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각 대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제개발구호협력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 물리치료사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현재보다 ‘1~3명’ 또는 그 이상의 물리치료 봉사단원의 증원이 필요하다.

둘째, 물리치료과 학생들은 해외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지만 참여 의지가 높아서 해외봉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제공과 해외봉사 경험이 필요하다.

이상의 조사를 통해 한국국제협력단의 물리치료분야 증원의 필요성과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해외자원봉사에 대한 높은 참여의지를 파악 할 수 있었다. 해외자원봉사 뿐만 아니라 국내 물리치료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병행 되어야 할 것이며,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 물리치료사가 국제개발구호협력 분야에 보다 많이 기여 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대한 추후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Choi HS. The measures for facilitating international youth exchanges-ase on the youth development of KOICA-Myong Ji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10.
- Fan SJ.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volunteers perceptions in 2010 Shanghai EXPO mega-event. Paichai Universi.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10.
- Han YT.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for development plan for : focusing on KOICA overseas volunteers. Sungkyunkwan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9.
- Jeon SH. Study on developing korean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 Seoul. Koica. 2007: 15-19.
- Koica. Health and medical strategies 2011-2015. Seongnam. Koica. 2011: 1-3.
- Kwon HJ. Study on volunteer activities of college students. Dong-A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1988.
- Lois J.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1. New York. United Nations. 2011: 4-64.
- Park DW. 2010 Koica aid statistics. Seongnam. Koica. 2010: 104-121.
- Seong BJ. The way to be international expert. Seoul. KPI Publishing Co. 2000: 21-68.
- Yeom GI. Resarch on actual condition of overseas volunteering service activity and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oversea volunteering : the activity of KOICA. Dongshin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7.
- Zhang YY. The analysis of the volunteers' perceptions of mega-event-focus on 2008 Beijing olympics-. Hanyang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8.
- 논문접수일(Date Received) : 13년 3월 31일  
 논문수정일(Date Revised) : 13년 4월 30일  
 논문게제승인일(Date Accepted) : 13년 5월 10일